

# ‘목화의 섬’ 목포 고하도 개발 사업 탄력

목화단지 실시계획용역 발주  
‘디자인 바다 전망대’ 설치 등  
해안 힐링랜드 조성 사업 착수  
목포 관광 새로운 동력될 듯

유달산~고하도 간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맞물려 고하도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목포시는 이달 초 고하도 육지면 목화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디자인 바다 전망대’ 설치, 해안 힐링랜드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또 오는 22일부터 목포자연사박물관에서 고하도의 역사적 사실과 향후 고하도 조성 계획을 홍보하는 ‘고하도’특별기획전이 개최된다.

목포시는 13일 “용역비 4550만원을 들여 달동 고하도 일원 8만4000㎡에 육지면 목화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향토 산업으로 육성하고 목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시계획 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에는 기본 조성 계획도를 비롯해 목화 재배기술 매뉴얼 작성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가공식품 유통 및 고부가 목화상품 현황조사, 목화단지 주민참여 규모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용역 결과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특히 대규모 목화단지 조성은 국내 육지면 발생지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체험거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목포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목포시는 보고 있다.



유달산~고하도 간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될 국내 육지면 발생지인 고하도 전경.



목포시가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조성할 대규모 목화단지 조성 예정부지 조감도.

박홍률 목포시장은 “현재 고하도에 다수 분포된 무화과 밭이 예전에는 모두 목화밭이었다. 경제성만 확보된다면 대단위

목화밭 조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목화에서 실을 뽑아 면을 생산하는 과정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완성된 면 소재 제품을 판매하는 기념품판매장 등을 설치해 이색적이고 독특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또 고하도에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전망대와 상징물 기능을 하게 될 ‘디자인 바다 전망대’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 6억원이 투입되는 바다 전망대의 규모는 가로·세로 각각 10m에 높이 20m로 설치된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추진되며 지난 8월 제2차 추경에 예산이 확정됐다.

목포시는 지난달까지 편입부지 현황 측량을 마치고 현재 토지 매수 작업이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 사업을 발주해 내년 8월 준공할 계획이다. 서남권 해상교통의 관문인 고하도에 전망대가 설치되면 랜드마크 기능과 함께 해상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테마형 관광 상품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전해의 관광자원인 고하도 해안을 이용한 ‘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 사업은 고하도의 해변에 위치한 기암괴석과 일제 강점기 조성된 동굴 등 자연 절경을 조망하기 위해 3km에 달하는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비는 국비 24억5000만원과 시비 10억5000만원 등 총 35억원이 투입된다. 목포시는 이달 중으로 실시 설계에 들어가 내년 3월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서 가장 가고 싶은 곳 유달산·맛집

제주행 뱃길 이용객 설문 조사  
10명중 4명이 목포 체류 안해

목포시가 지난달 목포~제주 간 뱃길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유달산과 맛집 투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목포 뱃길 이용객 400여명을 대상으로 목포여객선 터미널과 제주~목포를 오가는 선박 안에서 직접 실시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 10명중 4.2명이 목포에 체류하지 않고 바로 제주로 가는 것으로 조사돼 ‘머무는 관광지’로의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 수단은 65%가 승용차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 방문 시 느낀 좋은 편이라는 응답은

42%에 달했고, 43%가 목포 음식점이 친절하다고 답변했다.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는 유달산(28%), 맛집(24%)을 선택했다.

불편사항은 주차난(32%), 어두운 주변 환경(22%)이 가장 높았고, 개선 사항으로 ▲택시·음식점상인 불친절 ▲볼거리 부족 ▲특산품 구입 소품장소 부족 ▲비싼 음식값 ▲주변 환경 불청결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 부족 등을 꼽았다.

목포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여객선터미널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차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교통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가로등을 재정비에 주변 환경을 밝게 하고, 저가 단품요리 개발, 청결운동,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문화+예술+관광’ 결합 콘텐츠 개발해야

목포문화재단 활성화 토론회

목포시의 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관광’이 하나로 결합된 목포만의 콘텐츠가 개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문화재단이 최근 주관한 ‘목포 문화재단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사진)에서 손재오 극단 깃돌 상임연출은 “문화, 예술, 관광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찾아나서 로컬 문화의 집중도를 높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연출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브랜드 예술, 시민문화향유의 생활예술의 재발견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문화재단이 민간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목포시의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확대개편과 함께 문화예술관련 일부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확대가 이뤄진다면 경영지원, 정책기획, 문화사업, 시설운영 등 재단 본연의 업무를 통해 목포만이 갖는 문예적인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재단의 정체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잡아내는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혁수 전국 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은 “무조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지역민의 선순환 모델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보 교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협력기구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중의 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대표는 “목포시에서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의존하는 한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확보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 목포시 위기가구 지원 긴급 복지사업 ‘성과’

목포시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가구 발생 시 긴급 지원하자는 ‘긴급 복지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특히 동절기를 맞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긴급복지 사업으로 위기가구에 총 1180건 7억9500만원이 지원됐다. 세부적으로 생계지원이 672건에 4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지원이 203건에 3억1000만원, 주거지원 119건에 2800만원, 연료·교육비 등 186건에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지난 10월말 기준 총 961건에 6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생계지원 573건

에 3억5000만원, 의료지원 179건에 3억5000만원 등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사회복지과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각 동 주민센터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 대상자를 발굴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목포시는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지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先지원 後처리’ 원칙을 세우고 시 콜센터(129번)에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접수될 시 1일 이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지원 이후 1개월 이내에 사후 조사와 적정성 심사를 실시해 부적정할 경우 비용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시보건소, 보육시설에 식단표 제공 ‘호평’

목포시 보건소가 매월 초 보육시설이나 노인 복지시설에 식단표를 제공,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앞장서 전국 보건소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13일 목포시보건소에 따르면 건강한 식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생애 주기별 효과적인 영양관리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229개소, 노인복지회관 6개소, 요양병원 10개소 등을 대상으로 식단표와 영양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문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 아동센터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등 50여 곳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식단표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다 목포시보건소장은 “시민 영양관리 차원에서 건강식생활 실천율을 제고하

고 영양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단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는 올 들어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100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초·중·고 학생 1만 명에게 주류나 위해 기능영양성분 섭취 저감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임신부와 영유아들을 위해서는 영양플러스 사업과 함께 초·중·고 6개교에서 학생비만 영양교실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10개소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스쿨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201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 novita is COMFORT

2016.10.04 ~ 2016.11.30

품격1

참 편안 **비데**

**Comfort**

NEW

단위

BD-N443(설치비 별도) BD-N433(설치비 별도)

**279,000 / 249,000**

+ 브레프 퍼워 액티브 5종

품격2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속형 비데 특가**

BD-N430T/A5(설치비 별도) BD-N423T(설치비 별도)

**159,000원 159,000원**

품격3

새 비데를 할인가로!

**비데 보상 판매**

BD-A433R/SY(설치비 포함)

**219,000원**

\*타사 제품 가능

노비타 비데로 욕실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행사비데 구입시 1년치 필터(2개)증정!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본사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www.novita.co.kr

구입문의 | 비데프라자 (062)515-1144